

국외 선진고도 조사 보고서

(터키, 이집트)

2009. 12

문화국토전략센터 재미옥

목 차

I. 출장 개요	1
1. 목 적	1
2. 출장 개요	1
3. 출장자	2
II. 주요일정	3
III. 주요활동 내용과 성과	4
1. 터키 방문	4
가. 터키 개관	4
나. 이스탄불 역사환경보존이사회 방문	5
다. 터키 문화유적지 방문	7
2. 이집트 방문	23
가. 이집트 개관	23
나. 이집트 고대유적최고위원회 방문	24
다. 이집트 문화유적지 방문	27

IV. 참고자료	52
1. 유네스코 지정 터키, 이집트의 세계유산	52
2. 이집트 고대유적최고위원회 소개	56
3. 수집 자료 목록	59

Ⅰ . 출장 개요

1. 목적

- 세계 10대 古都로 꼽히는 이스탄불 등 국외의 고도 보존·육성 현황 및 문화유산 관리·활용실태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고도육성 추진 방향 모색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고도육성사업을 담당하는 古都 지역 담당공무원과 합동조사를 통해 고도육성 정책의 공감대 형성 및 고도육성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

2. 출장개요

- 기 간 : 2009.11.15(일) ~ 11.23(월) (7박9일)
- 출 장 국 : 터키, 이집트
- 조사인원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외 문화재청, 지자체 공무원 18명
 - 문화재청 : 10명
 - 지 자 체 : 8명 (4개 古都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조사내용
 -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고도보존 및 육성 방안 벤치마킹 및 국내 고도에 접목 방안 모색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과, 옛도시에 남아있는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고도보존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방문지
 - 터 키 : 이스탄불(세계 10대 古都), 콘야(터키 중부 평원의 고대도시로 11c 셀주크 왕조의 수도), 안탈랴(로마시대 유적지구) 등
 - 이집트 : 룩소(세계 10대 古都), 카이로(6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집트 문명의 수도), 알렉산드리아(프톨레마이우스 왕조의 수도) 등

3. 출장자(총 19명)

소 속	부 서	성 명	연 령	비 고
문 화 재 청	고도보존팀	이향수	52	단장
	보존정책과	권석주	50	
	고도보존팀	박동석	51	
	활용정책과	곽수철	43	
	정책총괄과	정금호	42	
	고도보존팀	배준우	40	
	운영지원과	강병희	35	
	운영지원과	김영미	39	
	정책총괄과	정래영	31	
	기획재정담당관	김도이	49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미옥	55	
충남도청	문화예술과	김정호	43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여홍기	45	
경주시청	문화재과	박찬동	57	
경주시청	문화재과	이활우	46	
공주시청	석장리박물관	김재철	55	
공주시청	문화재관리소	지원구	32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원석연	48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배창경	40	

II .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일 정
제01일 11/15 (일)	인천공항	11:00	○ 인천공항 집결
		13:30~18:15	○ 인천공항 → 이스탄불
제02일 11/16 (월)	이스탄불	오 전 12:00	○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방문 ○ 이스탄불 역사지구 답사(성소피아 사원, 오스만투르크 궁전, 블루모스트 등)
	카이세리	22:15~23:35	○ 이스탄불 → 카이세리
제03일 11/17 (화)	카바도끼아 콘 야	전 일	○ 카바도키아 및 콘야 답사(데린구유, 괴레메 계곡, 메블라나 사원 등)
제04일 11/18 (수)	아스펜도스	전 일	○ 아스펜도스 및 안탈라 유적지구 답사 (로마시대 유적지, 구 시가지 등)
	안 탈 라 이스탄불 카이로	19:40~20:55 23:35 01:50+1	○ 안탈라 → 이스탄불 ○ 이스탄불 → 카이로 ○ 카이로 도착
제05일 11/19 (목)	카 이 로	전 일	○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방문 ○ 피라미드, 스픝크스, 고고학박물관, 올드 카이로 등 참관
제06일 11/20 (금)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전 일	○ 카이로 → 알렉산드리아(약 2시간) ○ 알렉산드리아 견학(아부메나 유적지, 카이 드베이 요새, 파로스 등대, 폼페이 기둥, 템 엘 수카피의 지하묘 등)
	카이로		○ 카이로 귀환
제07일 11/21 (토)	카이로 룩 소	전 일	○ 카이로 → 룩소 ○ 룩소 견학(왕가의 계곡, 멍논의 거상, 함세슈트 여왕의 장제전, 카르낙 신전, 룩소 신전, 펠루카 등)
	카 이 로		○ 룩소 → 카이로
제08일 11/22 (일)	카 이 로	11:20	○ 카이로 → 인천공항
제09일 11/23 (월)	인 천	07:00	○ 인천 공항 도착

Ⅲ . 주요활동 내용과 성과

1. 터키 방문

1.1. 터키 개관

-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터키는 히타이트에서, 로마, 비잔틴 제국, 오스만대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거쳐 간 곳이다. 초대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어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터키를 찾음과 동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화려했던 이슬람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는 이슬람국가로서 자리잡았음
- 국 명 : 터키 공화국 (Republic of Turkey)
- 수 도 : Ankara시 (인구 : 약 438만명)
- 면 적 : 779,452km² (한반도의 3.5배)
 - 아나톨리아(Anatolia, 아시아) : 755,688km² (97%)
 - 트레이스(Trace, 유럽) : 23,764km² (3%)
- 인 구 : 7,058만명 (2007년)
- 민족구성 : 터키족(90%), 쿠르드족(약 1,000만명으로 추정), 아랍인 36만, 아르메니아인 5만, 기타 그리스인, 유태인 등
- 언 어 : 터키어
- 기 후 : 여름은 고온건조하며, 겨울은 온화하고 다습함(연평균 기온 18~20)
- 종 교 : 전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수니파가 다수)이며, 그밖에 기독교 등
- 정부형태 :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 임기 5년의 중임제
- 의 회 : 단원제(임기 4년, 의석 550석)
- GDP : 7,418억불(2008년)
- 1인당 GNP : 10,436불(2008년)

1.2. 이스탄불 역사환경보존이사회(Directorate of Historical sites protection,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

- 일 시 : 2009년 11월 16일(월) 10:00~11:30
- 장 소 : 이스탄불 역사환경보존이사회 회의실(이스탄불)
- 참석자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외 문화재청, 지자체 공무원
 - 문화재청 : 고도보존팀 이향수 팀장, 박동석사무관, 배준우
 - 지방자치단체 : 박찬동 경주시 문화재과장, 배창경(익산시), 지원구(공주시)
 - 국토연구원 : 채미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터키 : Cem Eris, Director of Historical Sites pro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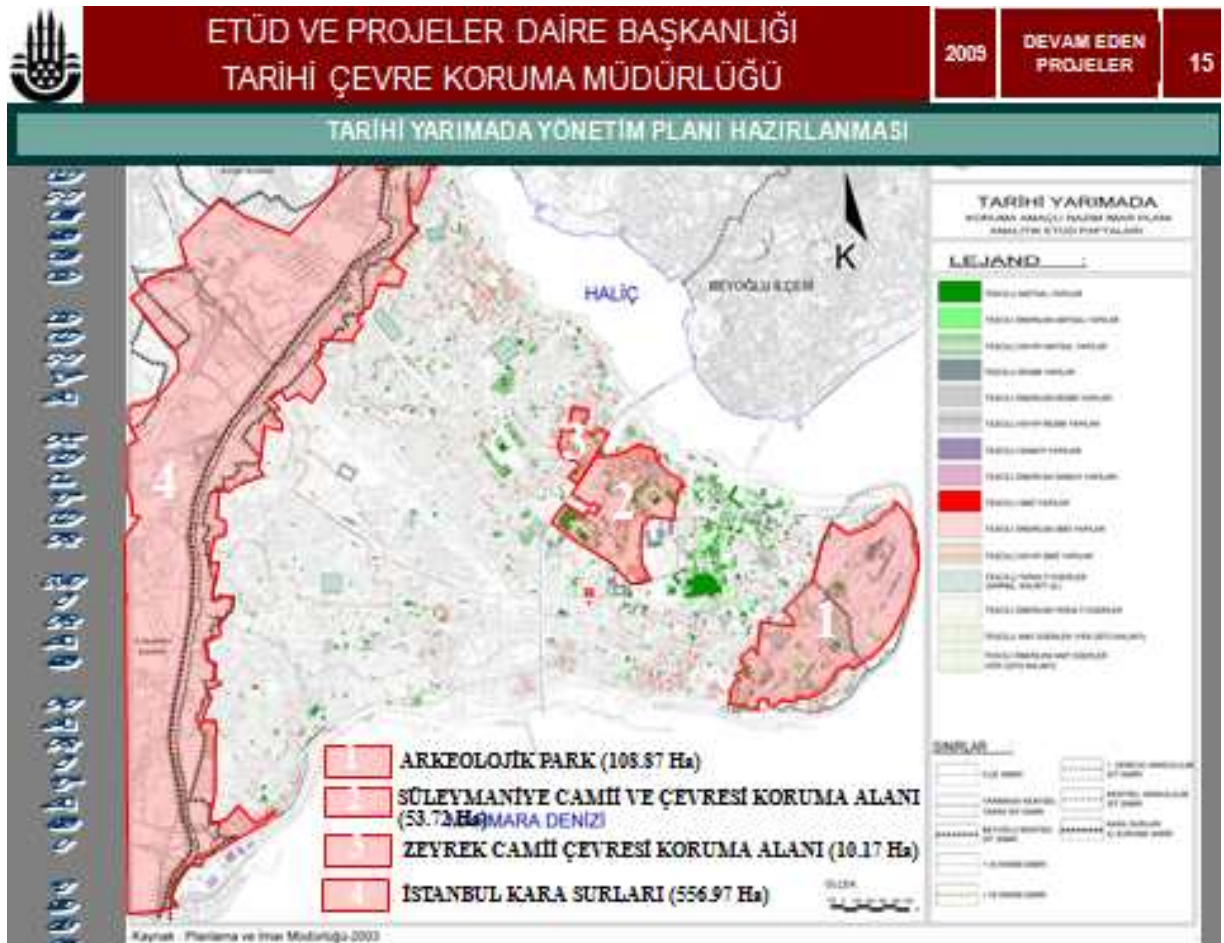


〈 역사환경보존이사회 방문 시 회의 모습〉

[주요 논의사항]

▣ 문화유산과 역사도시 보존 현황

- 터키에는 우리나라의 「고도보존법」과 같은 법이나 고도읍지 전체를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계획은 없고, 개별 문화재나 유적지를 중심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음
- 이스탄불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4개 지구가 있으며, 50여개의 역사유적보호지구가 있음
- 세계문화유산은 중앙부처인 문화관광광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역사환경보존이사회의 역할

- 이스탄불시에서 문화를 역사문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2개의 부서중 하나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 문화재 복원, 건축 엔지니어링, 머신엔지니어링, 지도작업 등을 하고 있음

■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들의 반발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전체가 보호구역(protection area)으로 관리되고 있고,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 그러나 보존구역 내에 있는 사유재산의 보수작업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매우 협조적임
 - 보호구역내 주택은 정부가 보수나 수리비용을 제공하여 역사문화 경관과 조화된 형태의 건물을 유도

1.3. 이스탄불

-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위치한 이스탄불은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역사에 걸맞게 아주 자연스럽게 동서양 문화와 상업의 교류지로서 역할을 하였음
- 세계를 지배한 3대강국인 로마, 비잔틴, 오스만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었던 이 곳은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 과거 번영의 흔적들을 보존해놓고 있음으로서 생생한 역사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만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도시로서의 면모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이스탄불이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발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데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바로 보스포러스 해

협이기 때문임

- 보스포러스 해협은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협으로 흑해의 자원들이 서방으로 나가는 경제적 지름길임
- 지리적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두고 유럽과 아시아로 나뉘지기 때문에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보스포러스 해협을 두고 동쪽의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이 되고 서쪽의 유럽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임
- 유적지가 모여있는 곳은 구시가지인 술탄 아흐멧 지역으로 유럽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지역에는 로마/비잔틴/오스만 제국의 궁전과 교회가 모여있고 모두 이지역에 몰려있음

1.4. 이스탄불의 술탄 아흐멧 역사문화지구

- 술탄아흐멧유적지구는 오스만터키 때 건립된 술탄아흐멧사원, 토크아프궁전, 소피아성당 등이 밀집해있는 지구로 세계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곳임
- 이 곳에는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현 거주민의 주택은 신축, 개축, 지붕모양, 색채 등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
- 현재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며, 이슬람사원, 토크아프궁전 등과 함께 무너진 성곽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술탄아흐멧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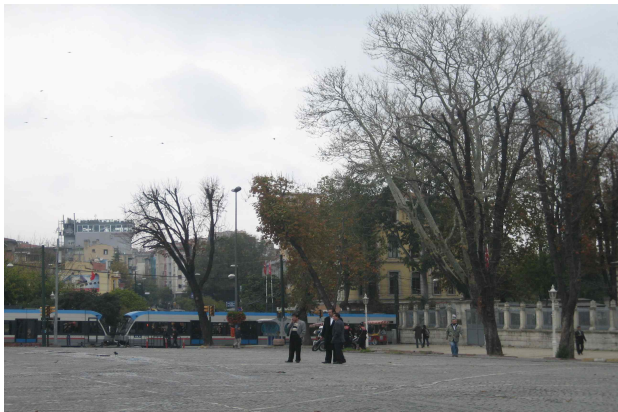
- 술탄아흐멧 사원은 술탄아흐멧 1세가 건립을 명령하여 건설되었으며, 토크아프 궁전과 함께 이 지구의 중심 유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원 앞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원의 조망을 가리지 않고 사원의 시인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고, 공원 끝 지점에 신자들이 기도를 드

리거나 대중 행사를 할 수 있는 IT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 등을 배치시킴



< 술탄아흐멧 사원 전경 >

- 사원 주변지역엔 높은 건물은 없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과 유구가 돋보일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있음



< 술탄 아흐멧 사원 주변지역의 유구와 광장 >

▣ 토크아프 궁전과 그 현대적 활용

- 술탄아흐멧 역사유적지구 안의 토크아프 궁전은 보스포라스 해협의 높고 평평한 곳에 위치한 70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25명의 터키왕이 380년간 거주하던 궁전임

- 터카프 궁전은 1453년, 오토만 제국의 술탄인 메흐멧이 이스탄불을 차지하게 되면서 처음 건설되어 그 후 4세기 동안 꾸준히 그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고, 그 결과 이 곳은 15세기~19세기 초까지의 오투만 건축양식의 변화된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
- 토카프 궁전은 원래 오투만 제국 대대로 술탄 군왕들이 거처했던 성으로 한때 이 곳에는 술탄과 그 가족 외에도 5만명이 넘는 시중들과 군사, 관료들이 거주했었음
- 옛날 요리를 만들었던 곳은 지금은 도자기 박물관이 되었고 보물고에는 술탄 군왕들이 사용했던 옥좌, 면류관, 무기, 생활용품, 왕비나 여자들이 사용했던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으며 터어키 각지에서 미녀를 모집했던 할무, 신관(후궁의 시중을 드는 남자)의 방이 보존되어있음
- 토카프 궁전 안에는 4개의 정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3정원인 교육의 정원은 정복국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던 장소였으나, 현재는 역대 술탄의 보석, 가재도구, 옷 등을 전시한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궁전 내의 도로 등은 모두 정비 수리되었으나, 부분적으로 5-6세기의 유구를 그대로 노출 전시하여, 궁전내의 역사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관광적 흥미를 촉진시킴



< 5-6세기 노출 유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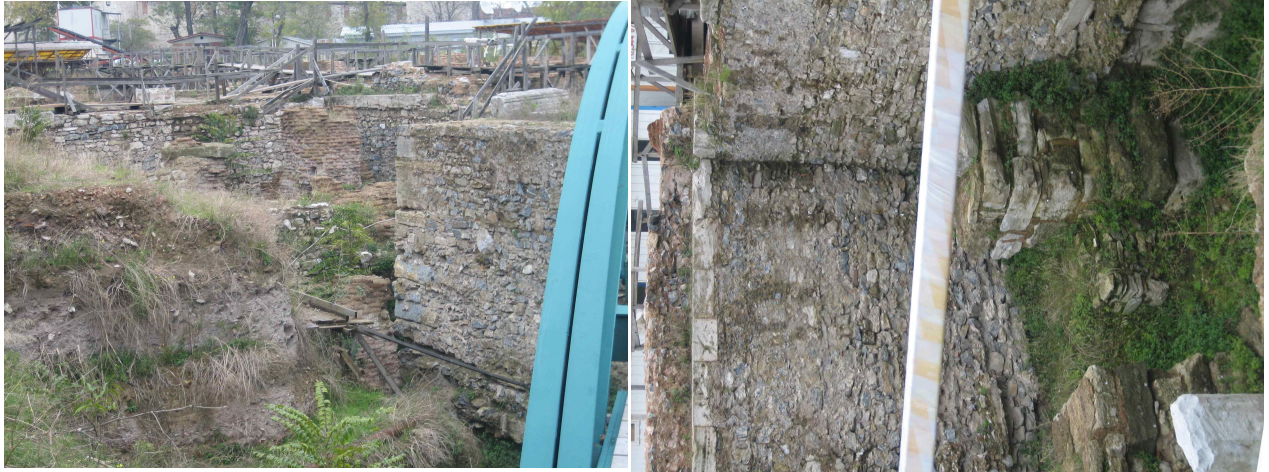
- 궁전 부속건물을 레스토랑으로 활용하여 유적의 현대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음



< 토크 궁전 내부 성곽 옆의 레스토랑, 야외 공연 및 휴게공간 >

■ 술탄아흐멧 고고학공원

- 술탄아흐멧사원과 토크아프궁전 사이에 있는 고대 유적발굴현장은 유적은 발굴 후 고고학 공원과 호텔 등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



< 고고학 공원에 들어설 호텔과 주변 유구 조감도 >

■ 유적과 주변 자연의 조화로운 보존 관리

- 토크아프 궁전 주변의 성곽외부를 야생의 초지 형태로 보존하고 건물물을 짓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궁전과 바다의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시키고 있음
- 바다에서 궁전과 성곽을 조망할 수 있고, 궁전에서도 바다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 옛도로를 활용한 옛도시 조직 유지

- 도로는 넓히지 않고 옛 도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옛 도시의 조직을 유지시키고 있음
- 현대식 건물도 있으나 최대 4층을 넘지 않고 있음



< 역사유적지구내 옛 가로망과 주변의 건물 >

■ 곳곳에 산재한 유적의 경관적 활용

- 허물어진 성곽을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둬으로써 고도읍지의 역사적 경관감을 높이고 있음



■ 예레바탄-지하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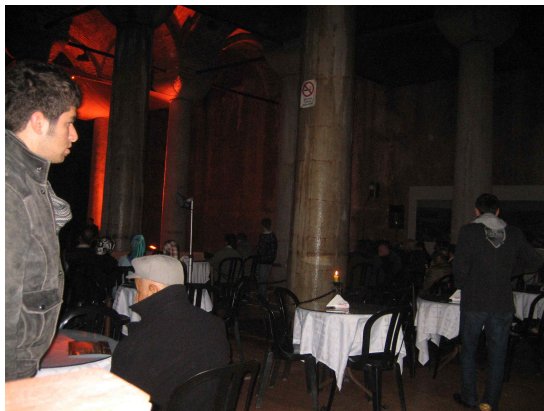
- 예레바탄은 비잔틴 제국때인 532년 유스티니아스 대제에 의해 세워진 지하 저수지임
- 이스탄불의 북쪽 25km 떨어진 벨그라드 숲에서 물을 끌어온 후, 발렌시아 수도교를 통해 이물이 예레바탄에 저장되며, 전체 336개의 기둥이 세워져있고, 전체 물 저장량이 10만톤에 이름
- 전시에 대비하여 건설된 이곳의 기둥은 저수지를 위하여 6개월만에 건설되었다고 하며, 기둥은 여러 건축물에서 떼어온 것으로 그 중에

는 그리스 유적인 메두사의 머리가 있는 기둥도 있음



< 예레바탄 지하저수지 >

- 예레바탄 지하저수지에도 레스토랑이 있어 음악회 공연등이 이루어지고 음식과 음료를 팔고 있음



< 예레바탄 지하저수지의 레스토랑과 실내악단 공연 모습 >

1.5. 안탈랴 (11.18)

- 안탈랴(Antalya)의 옛날 이름인 Attaleia는 B.C.150년에 팜필리아 해안에 도시를 세운 페르가멘의 왕 Attalos 2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음
- 안탈랴는 로마인들이 페르가멘 왕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AD 13세기에 로마황제 하드리안(Hadrian)이 이 곳에 다녀가고 알려지게

되었음. 이 때 하드리아안의 방문을 기리기 위해 지은 아치가 지금까지 남아 있음

- 셀주크 투르크가 1207년 안탈라를 지배하면서 이 도시는 아달라 (Adalya)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고 오토만 또한 셀주크의 명칭을 따랐음

■ 고대로마 원형극장

- 안탈라 인근의 아스펜도스는 로마시대 극장으로서 고대의 유적 중에서 보존상태가 좋고 복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원형극장 유적임
- 셀주크 왕조시대에는 한때 궁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꾸준히 보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객석은 물론이고, 무대 뒤에 있는 실내공간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음
-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별다른 음향장치 없이도 무대 위의 작은 소리가 원형극장의 2층 객석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로 음향설계가 잘 되어 있음
- 매년 여름에 이곳에서 아스펜도스 국제오페라, 발레축제가 펼쳐지고 있음



<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

■ 하드리아누스 문과 안탈라 구시가지

- 안탈라는 로마가 공화국이 황제들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으로 되면서 로마제국의 영토가 된 곳임
- 안탈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로서, 해안을 따라 성벽이 남아있으며, 성벽 안쪽으로 붉은 기와지붕을 한 주택들이 나지막하게 형성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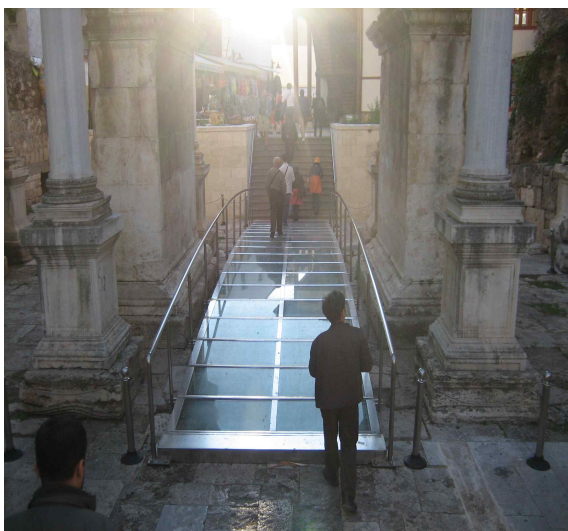
< 안탈라 시가지 전경 >

- 안탈라에는 로마시대의 문인 하드리아누스문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30년 로마 제국의 오현제중 하나로 손꼽히는 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장식용의 대리석 아치로서 일종의 개선문임
- 하드리아누스 문은 안탈라 지방에 있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안탈라의 구시가지로 들어가게 됨



< 하드리아누스 문 >

- 성벽안쪽으로 구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옛 도시의 모습이 많이 살아 있고, 로마시대의 도로와 도로에 패인 마차 자욱 등을 보존처리하여 노출시킨 유구가 군데 군데 흩어져 있음



< 노출 보존 처리된 하드리아누스 다리 유구와 마차 자욱 >

- 구시가지 곳곳에 유구들이 산재해 있고, 무너진 성곽 등은 이 지역의 주요 역사경관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옛가로망을 따라 주택들이 늘어서 있으며, 기존 주택과 담장, 마당을 상점과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음



< 안팔라 가로망, 담장과 마당을 상점, 식당으로 사용 >



○ 옛도로 유구를 보강유리로 노출시키고, 이를 관광 유인요소로 활용하여 도로 유구에 면한 집을 호텔로 사용하고 있음

※ 이 호텔은 아침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하루 숙박료는 90유로



< 로마시대 도로 유구의 노출과 호텔 >

○ 현대식 건물 앞에도 옛 유구를 노출시켜 경관적 이질감을 줄이고 경관적 다양성을 높이고 있음



< 현대식 렌터카 건물 앞의 노출 유구 >

- 새로 신축한 건물의 벽체, 색채를 기존 건물과 유사하게 하여 공간적 변화감과 통일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담장을 통일감 있게 정비하여 옛도시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음



- 무너진 성곽과 신축한 건물의 조화
 - 무너진 성곽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이용함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공존하는 모습을 연출하여 역사경관을 유지하고 있음



2. 이집트

2.1. 이집트 개관

- 국 명 :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 수 도 : 카이로 (인구 : 약 900만명)
- 면 적 : 100.1만km²(한반도의 5배, 전국토의 95%가 사막)
- 인 구 : 7,258만명(2007년)
- 민족구성 : 이집트인, 베드윈,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된 햄족이 99%, 그리스, 누비안, 아르메니아인 등 소수민족 1%
- 언 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 및 불어 통용(지식층)
- 기 후 : 카이로를 비롯한 내륙(아열대 기후), 지중해 연안(지중해성 기후)
- 종 교 : 대부분이 이슬람, 소수의 기독교계 콥틱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 국가원수 : Mohamed Hosni Mubarak
 - 총 리 : Ahmed Mahmoud Nazif
- 의 회 : 국민의회(임기 5년, 454석), Shura Council(임기6년, 264석)
- GNP : 804억불(2006), 1인당 GNP : 4,200불(2006)

2.2. 이집트 고대유적최고위원회 방문

- 일 시 : 2009년 11월 19일(목) 10:00~11:30
- 장 소 : 이집트 문화부 고대유적최고위원회 회의실(카이로)
- 참석자
 - 문화재청 : 고도보존팀 이향수 팀장, 박동석사무관, 배준우
 - 지방자치단체 : 박찬동 경주시 문화재과장, 배창경(익산시), 지원구(공주시)
 - 국토연구원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 이집트 : Dr. Sabry Abdel Aziz(고대유적최고위원회 이집트유적과장)



〈 고대유적 최고위원회 방문시 회의모습 〉

[주요 논의사항]

■ 고대유적최고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 이집트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5개의 하부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첫번째로 고대 이집트유물, 두번째는 이슬람시대, 기독교시대 유물, 세번째는 박물관관리, 네번째는 유물 보수, 다섯번째는 수입비용을 관리하는 회계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에서는 고대유물의 활용과 보존을 관장하고 있음

■ 고대 유적이나 문화재를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 이집트는 1835년부터 유물보존법을 제정하였고, 1951년에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983년에 제정된 일명 117번 법으로 유물을 관리

■ 문화재 관리예산의 재원조성과 집행

-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 국가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적지 또는 박물관의 입장료 등을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 고대유적최고위원회로 입장료의 90%가 오고, 나머지 10%는 유물이 있는 도시로 배분

■ 해외의 이집트 문화재 회수

- 1972년에 유네스코와 조약을 체결하여 해외로 반출된 유물을 환수하는데, 72년 이전에 반출된 유물은 회수하기 어렵고 72년 이후 반출된 유물은 환수하고 있음
- 메트로폴리탄, 대영박물관, 르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도굴범들의 유물을 사지 않도록 조약 체결
- 이집트에는 200여개의 해외 발굴팀이 와서 발굴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도굴된 유물을 거래할 경우 이집트에서 발굴작업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부과됨으로 인해, 해외박물관의 불법 밀반출된 유물거래를 방지할 수 있음
- 지난 7년 동안에 외국에 있는 유물 4500점을 돌려 받았으며, 앞으로 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7년전부터 국민들에게 유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유물가치 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 때 실시

■ 유적 주변지역의 관리방법

- 유적 주변을 크게 세 개지역으로 구분하여, 1구역은 신축을 허용하지 않고 매입할 지역이며, 2구역은 2층, 3구역은 4층까지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에 의해 피라미드 주변의 1구역을 예로 들면, 기존의

건물은 헐지 않으나, 추후 신축은 허용하지 않음

- 완충구역의 범위는 이슬람유적과 조화된 형태로 주변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완충구역의 범위는 유적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2.3 룩소

- 룩소에 있는 왕가의 계곡은 신왕국 시대의 제18 왕조에서 제20왕조까지의 왕들의 묘소가 있는 일종의 파라오들의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임
- 룩소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태양이 뜨는 동쪽에는 신전을 짓고, 태양이 지는 서쪽에는 왕가의 계곡에는 묘지나 신전을 지었다고 함
- 연대로 추정해 볼 때 BC 1600년에서 BC 1200년까지로 이 계곡의 무덤은 일반 피라미드 양식과 조금 다른 암굴을 파서 만든 분묘로 부활을 위해 미이라가 도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함
- 룩소에는 멤피스의 거상, 하셉수트장례신전, 카르낙 신전, 룩소신전 등이 있음
- 왕가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던 불량주거지는 정부가 2000만 불을 들여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민을 이주시켰음



< 멤피스의 거상 >



< 하셉수트 장례신전 >



< 카르낙 신전 >



< 룩소 신전 >